

2020. 장애인식 개선교육 주간

# 행복한 동행

-장애인식 개선 및 인권보호 소식지-





# 행복한 동행

행복한 동행은 장애인식 개선교육 주간을 맞아  
장애인식 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한 소식지입니다.  
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 
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**행복한 동행**,  
지금 출발해 볼까요?





**COVID-19**

**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 
코로나-19 바이러스!**

**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 
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 
힘쓰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.**



**그 중 한 분이 바로  
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입니다.**



**안전한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  
코로나-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 
매일 알려주고 계십니다.**

**그런데, 매일 발표시간이 되면  
함께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.**



**마스크도 끼지 않은 채 부지런히 손을  
움직이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?**

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 
정확하게 듣기 어려운  
청각장애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는

# 수화통역사



**수화**는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 
대화방식 중 하나로  
손의 움직임을 사용해서  
생각과 마음을 전하는  
의사소통 방식입니다.

**수화 통역사**는  
청인(들을 수 있는 사람)의 말을  
수화로 전달해주거나  
수화를 말로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

그런데  
TV나 언론에 나오는 수화통역사를 보면  
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.

왜 마스크를 쓰지 않을까요?





**그 이유는 바로  
수화는 손의 움직임 뿐만 아니라  
입과 표정으로도  
의미를 전달해야하기  
때문입니다.**





**'괜찮다'** 라는 수화와  
**'슬프다'** 라는 수화를 할 때 표정이 어떤가요?  
수화를 모르더라도  
어떤 의미인지 **표정**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.  
이렇듯 수화를 할 때에는 표정이 큰 역할을 합니다.





**그리고 수화는 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 
입으로 말하면서 수화를 합니다.  
전문용어나 어려운 단어가 쓰일 때에도  
입으로 단어를 말하면서 수화를 합니다.**

**이렇게  
입과 얼굴표정은 수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 
청각장애인에게 중요합니다.**



**그래서 마스크를 쓰면  
입이 가려져  
정확한 의사소통이  
어렵기 때문에**

**수화통역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.**



**실제로 청각장애인은 마스크를 쓴 사람과 의사소통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.**

미국/중남미 ▼

## 청각장애인 위해 '보이는' 마스크 만든 美 대학생

CBS노컷뉴스 조혜영 기자 | 2020-04-02 15:28

뉴스듣기

5

12

가

📖

청각장애 특수교육 전공 애슐리 로렌스, 플라스틱 덧댄 투명 창 마스크 제작..."필요한 사람 무료"



(사진=WLEX-TV 화면 캡처)

**청각장애인의 이러한 어려움을 느낀 미국의 한 대학생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보이는 마스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.**

기사 원문: <https://news.v.daum.net/v/20200402153001819>



이번 행복한 동행에서는  
수화통역사와 수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소식지를 읽으면서  
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내딛는 우리가  
되었기를 바랍니다.  
고맙습니다.

오늘도 국민의 건강과 알 권리를 위해  
애쓰고 계신 수화통역사분들의 노고에  
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.



# 수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?



**\* 수화와 청각장애인에 대해 더 알아보기**

**한국 농아인 협회: <http://www.deafkorea.com>**

**국립국어원 한국 수어사전: <http://sldict.korean.go.kr>**

**도서 「수화 배우는 만화」 (핑크북어 글·그림돌배게 펴냄)**